

# “패션업계, 4차산업 맞아 대변혁기...플랫폼 산업 재정의”

## [2017 패션업계 10대 뉴스]

한국패션협회는 7일 2017년 패션업계 동향을 담은 10대 주요 뉴스를 선정·발표했다.

선정된 10대 뉴스는 패션협회가 3200여개 패션업계 뉴스를 수집·분석했다. 연간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정보 빅데이터 약 100만건을 중요도 및 관련도 기준으로 골라냈다.

한국패션협회는 “2017년 패션업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이슈와 함께 대변혁기를 맞았다. 디자인 감성산업이었던 패션산업이 데이터에 기반을 둔 플랫폼 혁신 산업으로 재정의 되고 이에 따른 소비, 유통, 스타일 트렌드가 변화됐다”고 밝혔다.

산업혁명 열풍은 패션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고 있다. 디자인 감성산업이었던 패션산업은 이미존, 구글의 패션산업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데이터 기반 플랫폼 혁신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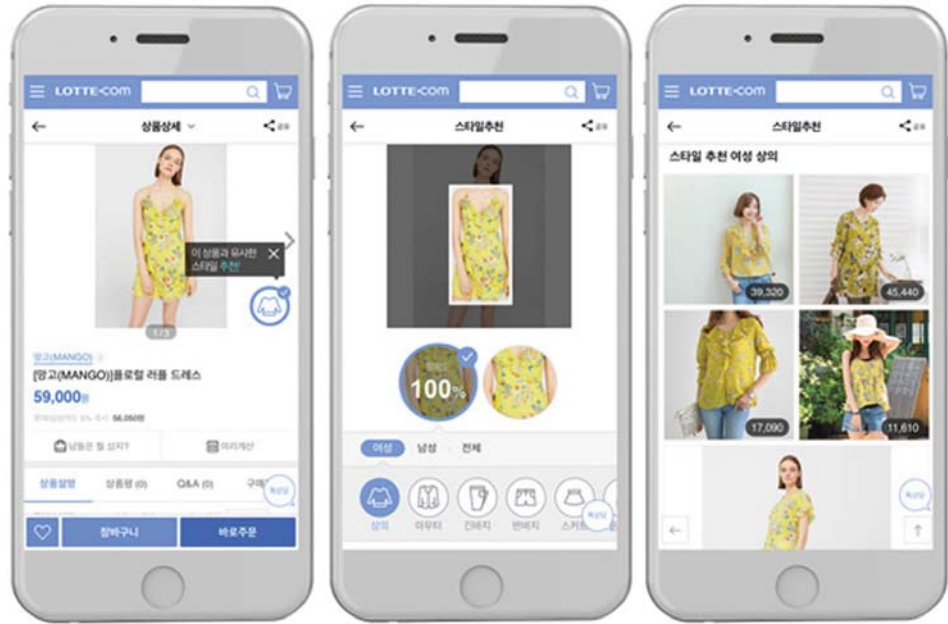
이는 추천 알고리즘, 큐레이션 서비스 등 일명 ‘취향저격’ 고객 맞춤형 제품 기획을 위한 패션 인공지능(AI) 상품기획(MD) 도입 등으로 발전될 것이다. AI, 딥러닝 등을 이용한 개인 큐레이션 서비스 시장 확대도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 ◇모바일 채널, 이커머머 마켓 장악

모바일 쇼핑거래규모 월 4조원 돌파, 네이버 쇼핑 플랫폼의 급성장, 패션 브랜드들의 자사를 강화, 온·오프연계(O2O) 채널 본격 시행, 1인 미디어, 인플루언서 마

### ◇4차 산업혁명, 패션산업 패러다임 변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 4차



캐팅 강세 등 온라인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시장점유율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차별화된 콘텐츠로 고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있다.

### ◇힘난한 경영환경, 노사 협력 노력

판매직 사원을 대거 정규직화한 패션기업이 나오는 등 정부가 권장하는 노동법의 모범 사례가 패션업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전안법 시행, 최저임금 상승, 중간관리자의 근로자성 인정 등 어려워진 경영환경을 노사가 협력해 새로운 생존전략으로 극복해야 할 때다.

### ◇히트 아이템 돌풍

벤치파카, 스트리트 웨어, 후드 티셔츠 등 단일 아이템 전성 시대로 최근 톱패딩 열풍은 장기 불황에 매출 효과 아이템으로 한국 패션 기업의 생존 및 지속 성장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 ◇‘사드’ 여파로 ‘China 플러스’ 부각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영향으로 중국에 집중했던 해외 시장 진출 이슈가 중국뿐만 아니라 인

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확대되고 있다. 직진출 보다는 라이선스 비즈니스, 파트너십 등 진출 방법에도 변화가 감지됐다.

### ◇대세로 떠오른 1인 소비시장

1인 가구 소비량은 2015년 기준 27.2%의 점유율을 나타내며 소비시장의 중심세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울로족, 워라벨, 덕후, 1인 패키지, 싱글슈머, 일코노미 등 1인 소비시장이 야기한 새로운 소비 행태가 나타났다.

### ◇Super Great...유통기업 자체 브랜드(PB) 상품

신세계, 현대, 롯데 등 대형 유통 3사 뿐만 아니라 무신사, W컨셉 등 온라인 셀렉트숍도 PB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단순 가격경쟁력을 내세우는 PB 상품기획에서 발전돼 트렌디함과 다양성, 상품력을 구축한 브랜드로 개발되고 있으며 매출 비중은 3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 ◇협력사와의 상생으로 지속 성장 모델 추구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방위적인 감질

근절을 위한 각종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패션기업들도 대리점 및 협력사와의 상생 관계 형성을 위한 자발적인 자정 노력 및 실제적인 기업 내부의 검증과 보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복고, 트렌드가 되어 돌아오다

1980~2000년대 초반 출생자로 대한민국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밀레니얼 세대는 사회적 혼란기에 인식이 높은 젊은 세대들이 아이콘으로 떠오르며 ‘저항’을 상징하는 유스 컬처가 문화의 전반적인 흐름을 차지하고 있다. 힙합, 서핑, 스케이트 보드 등 문화를 등에 업고 스트리트 캐주얼과 복고 트렌드가 캐주얼 및 스포츠 시장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 ◇구조 고도화 시작한 패션 업계

온라인 채널에서만 전개하는 브랜드 탄생, 비효율 브랜드 정리, 회전을 증대 및 재고를 감소 등 끊임없는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단순히 외형을 확장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이익률 개선을 위한 방안 강구를 통해 지속되는 패션업계의 장기 불황을 극복 중이다.

뉴스스

#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